



16면

정읍시, '향기'로 새로운 힐링 도시 조성

전주매일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음 7월 6일) 제26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정부, 9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송 지사 "공동체 의식으로 맞서자"

'외출 등 3대 방역 수칙 준수' 대도민 호소 도민 건강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 3차 추경예산 준비 민생경제 보호 노력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22일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와 관련,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위기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9월 6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회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일상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위협은 일부 지역 중심이던 1차 유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위급성을 알렸다.

이어 "도민께서는 불편하겠지만, 23일부터 2주간 외출, 타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종교계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모든 소모임과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제 도내에서 22일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까지 모두 67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 확진자는 41명이다.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7월 말까지 국내 발생 19명이었지만,

지난 15일 이후 국내 발생이 22명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를 초과하는 등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송 지사는 "전북도는 방역수칙을 위

반하는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발동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진단검사 거부와 역학조사 방해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는 고발과 벌금,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 위기에 맞서야 한다"며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과학적

전문성을 가진 방역 당국의 방침을 적극 따르고 생활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송 지사는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도민 건강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및 민생경제 보호를 약속했다.

그는 "신속한 진단검사와 이동 동선 파악,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와 치료를 이행하겠다"며 "3차 추경예산도 준비해 민생경제 보호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가운데)가 지난 22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적용' 결정에 따른 코로나19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주시, 정부 지침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주시가 정부 지침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시는 23일부터 모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1일부터 시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시 주관행사를 전면 중단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적용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조치가 취해지는 것.

집합금지조치로 영입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콜라텍·헌팅포차 등 12종 고위험시설 방역 조치 강화 김승수 시장 "안전을 위한 조치로 방역지킴 지켜달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방역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방역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도시가스요금 평균 12.2% 내린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

전북도는 최근 국제유가 및 LNG 수입가격 하락에 따라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12.2% 인하하고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2일과 20일에 각각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공급사별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을 심의했다.

도는 심의 결과, 도시가스사업 경영 효율화와 지구노력 강화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해 일부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도록 하는 한편 공공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평균 12.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국제유가 및 LNG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도매요금 인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산업용 불량 감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투자비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지난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도매요금이 14.4% 인하됨에 따라 도내 3개 도시가스사의 평균 소비자 요금은 1㎥당 13,887원으로 전년 대비 1,937원이 하락해 소비자가 지불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12.2% 감소했다.

또한 주택용 기본요금은 2007년 81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된 후 14년째 동결됐으며, 전국 주택용 기본요금 평균 841원보다 91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월 평균 50㎡를 사용

하는 전주지역 주택용 소비자의 경우, 기존 연 42만18천원(19.7월)에서 38만2천원(20.7월)으로 낮아져 가구당 연간 4만 6천원의 도시가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도민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완화한다"면서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도내 미공급지역을 줄여나가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북도와 협의 거쳐 시행

전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전주, 군산, 익산시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여부를 논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2·7면)

이번 논의는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방까지 빠른 속도로 폭넓게 진행되는 등 상황이 급격하

게 악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군산시에 거주하는 20대 확진자는 8월 5일부터 증상이 있었고 이동 경로가 다양해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군산시는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유호상 기자

정읍시의 향기공화국 정읍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정읍시의회 Jeongeup-si Council